

충남미래연구포럼
2018. 11. 21

阿里郎의 歌声
从华南唱到华北
我们的足迹
踏遍中国的战场
아리랑 노랫소리는
화남에서 화북으로
널리 퍼졌고
우리의 발자취는
중국 각 전장에
남겨 있다

항일독립운동 역사의 재조명과 충남도 남북 역사교류의 방향

- 한 여성독립운동가의 삶을 중심으로 -

박경철
충남연구원 중국연구팀장



대륙은 휘날리던 항일의서정 홍익명가들



제1강 5/18(목)
모스크바의 붉은 별, 주세죽 (1901~1953)

강사 손석중
<코레예바의 눈물>, <박헌영 트라우마> 등 저자, 건국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前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제2강 5/25(목)
의열단에서 조선의용대로의 힘찬 전진, 박차정 (1910~1944)

강사 안재성
<경성 트로이카>, <박헌영 평전>, <잃어버린 한국현대사> 등 저자, 저자
소설가



제3강 6/1(목)
한국 최초의 볼셰비키 혁명가, 김 알렉산드라 (1885~1918)

강사 정철홍
<소설 김 알렉산드라> 저자
시인, 前 국민일보 문화부장, 러시아 국립 외교아카데미 역사학과 박사



제4강 6/8(목)
태항산의 백마 탄 여장군, 김명시 (1907~1949)

강사 한홍구
<지금 이 순간의 역사>, <대한민국사> 등 저자
성공회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평화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 상임이사



제5강 6/15(목)
1932년 상해 홍커우 의거의 숨은 기획자, 이화림 (1905~1999)

강사 박경협
<이화림 회고록> <중국 대륙에서 부르는 태항산 아리랑> 저자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북경대학교 사회학과 박사



제6강 6/22(목)
사회주의 여성운동가 조선의 콜론타이, 허정숙 (1908~1991)

강사 신영수
<여성이 역사를 노래하다> 저자
(사)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 기획위원장, 근대여성사 연구자

- 일 시 : 2017.5.18 ~ 6.22 6주강좌 매주(목요일) 오후 7시
- 장 소 : 서대문구 통일로 251길 독립관 지하 1층 (독립문공원)
- 참가비 : 무료 (선착순 접수 50~60명)
- 사전전화 신청접수 : 02-924-0660 010-2937-7138



대갓집 마님에서 신여성까지,

일제와 맞서 싸운 24인의 여성 독립운동가 이야기



정운현 저음

**‘유관순 누나’만 알고 있는
이들에게 바치는 책!**

인문재원

남자현, 이화림, 안옥윤, 연계순..



남자현 지사
(1872. 12. 7 - 1933. 8. 22)



이화림 지사
(1905. 1. 5 - 1999. 2.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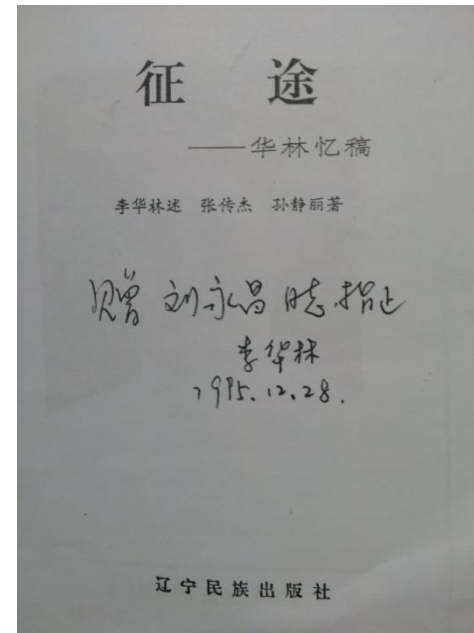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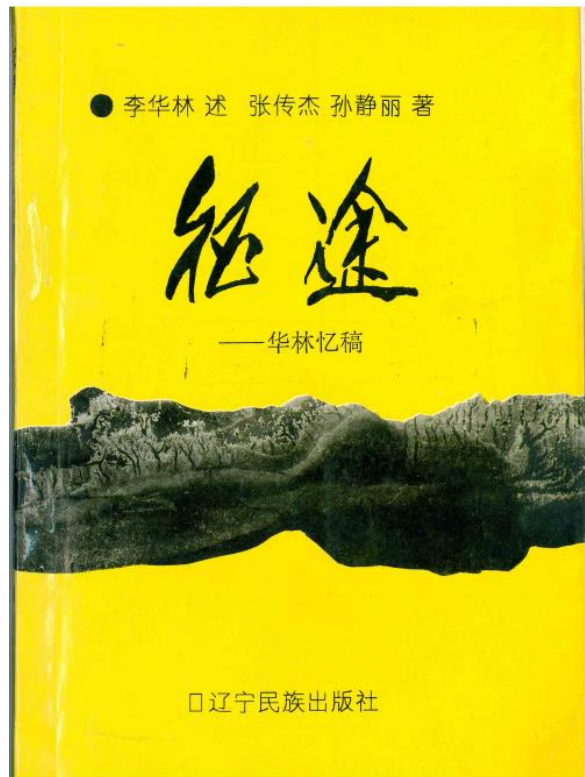
여성독립운동가 292(보훈처)
전체 국가유공자의 1.9%

조선사의 시대

중국 태항산 전투를 중심으로 한 영화 제작 중

③ 중국 · 일본에서의 독립 운동





이화림의 회고록 『征途』의 표지(좌)와 증정본의 친필 서명(우)

중국 대륙에서 부르는

타이항산 아리랑

중국항일유적지탐방단 지음



차이나하우스

이화림 회고록

중국 대륙을 누빈 불멸의 여성 독립운동가
이화림, 김구 선생과 함께 한 항일 투쟁의 기록
이화림 선생의 생애와 활동, 독립 투쟁의 과정

"너의 조국은 어디인가?"

"나의 조국은 조선이고 평양에서 자랐습니다."

- 김구 선생과 이화림 여사의 대화 장면

차이나하우스

...이화림 여사를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먼저, 그녀가 걸어온 길에 감동했고 감격했다. 나도 깊은 배움을 얻었다. 나는 눈물을 머금으면서 글을 썼다. 심지어 어떤 단락에서는 눈물로 쓰기도 했다.

나는 회고록의 형식으로 그녀의 일생을 쓸 수가 없었다. 왜냐면, 그녀가 걸어온 길이 독립의 길이요, 조선 인민이 민족해방과 국가독립을 쟁취하는 고난의 역정이었기 때문이다. 그녀의 족적은 바로 조선독립운동의 진실한 역사의 일부분이다. 이것은 또한 애국주의와 국제주의 교육을 가르치는 데 우수한 글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나는 역사유물주의의 시각에서 역사를 서술하는 방식으로 그녀의 일생을 새롭게 썼다. 책 내용 중에는 극히 일부의 허구의 문학적 묘사만 제외하면 과장적 낭만주의 색채는 거의 없다. 책에서는 이화림 여사와 조선독립을 위해 분투한 애국지사들의 눈부셨던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했다. 뿐만 아니라 “3.1운동”에서 “8.15해방” 까지 찬란했던 독립운동의 역사를 사실대로 재현하고자 했다...

<『征途』 저자 장환제 후기 중에서>



〈이화림 활동 지도〉

중국 망명 전의 이화림 여사

- 본명 이춘실(李春實)
- 1905년 1월 5일 평양시 경창리의 가난한 서민의 집에서 출생
- 아버지 이지봉, 어머니 김인봉, 큰오빠 이춘성, 이춘식 그리고 언니 한 명. 오빠 두 분도 중국에서 독립운동
- 미국인 선교사가 운영하는 송현소학교, 중학교에서 육아교육을 공부하고 군산시, 청진시 소재 유아원에서 근무
- 평양 수학 시 3.1혁명에 적극 가담하고 역사문학 연구회에서 활동

상하이에서의 활동들



1930년 상하이로 망명해 김두봉 선생의 소개로
백범(白凡) 김구 선생을 만나 한민애국단원에 가입
(사진은 1932년 무렵)



일본천황을 저격하러 떠 나기
전 태극기 앞에서 선서를 하고
있는 이봉창 의사



상하이 홍커우공원 폭탄투척 전
에 태극기 앞에서 선서를 하고
있는 윤봉길 의사

이봉창 의사와 윤봉길 의사의 거사에 조력함



광저우에서의 활동들

- 윤봉길 의사 폭탄투척 후 독립운동이 소강상태에 빠지자 광저우에 가서 그곳의 **중산대학 간호사 과정에 입학**. **진광화 등과 교류**
- 중산대학 유학생인 **김창국(金昌國)**을 만나 **결혼해 아들 김우성(金雨星)을 낳음**.
- 1935년 조선민족혁명당 청년당원 모집을 위해 광저우에 온 **의열단 출신 윤세주의 연설을 듣고 감동 받아 가족과 헤어져 이듬해 1월 남경에 가 부녀국 의료보건을 책임**



◀ 의열단, 조선민족혁명당과
조선의용대의 리더 윤세주 열사
(1900. 6. 24 - 1942. 6. 2)

조선의열단

1919년 11월 김원봉 등 13인의 조선인이 만주 길림시에서 조직한 항일무력독립운동단체

조선민족혁명당

1935년 남경에서 조직된 항일독립운동단체. 1932년 11월 김원봉의 의열단을 중심으로 김두봉의 조선독립당, 조선혁명당, 한국독립당, 신한독립당, 한국광복동지회 등 5개 단체가 연합해 결성. 지청천, 이범석, 김규식 등이 참여



중산대학(中山大學)

손문 선생이 1924년에 설립. 귀모뤼, 루쉰, 펑여우란 등이 교수로 근무함. 화남지역 최고의 대학



광저우기의열사능원 내 중조인민혈의정과 기념비

남경에서의 활동들

- 조선민족혁명당 부녀국 의료보건사업 책임
- 임철애(박차정 여사: 김원봉 선생의 부인) 등과 선전활동 전개
- 윤세주, 이춘암 등의 소개로 이집중(李集中, 본명 李鐘熙) 동지를 만나 재혼했으나 성격 차이로 곧 결별
- 조선민족혁명당에서 조선혁명간부학교(교장 김원봉)를 세워 우수한 조선청년 200명을 대상으로 정치, 군사교육을 실시(윤세주, 이육사, 정율성 등)



남경 근교의 폐찰 천녕사(天寧寺)
조선청년혁명간부학교가 있었던 곳임.

노정기(路程記) - 이육사(1904.4~1994. 1. 16)

목숨이란 마치 깨어진 뱃조각
여기저기 흩어져 마음이 구죽죽한 어촌(漁村)보담 어설픔고
삶의 티끌만 오래 묵은 포범(布帆)처럼 달아매었다

남들은 기뻐다는 젊은 날이었건만
밤마다 내 꿈은 서해(西海)를 밀항(密航)하는 잠크와 같아
소금에 절고 조수(潮水)에 부풀어 올랐다

항상 흐릿한 밤 암초(暗礁)를 벗어나면 태풍(颱風)과 싸워 가고
전설(傳說)에 읽어 본 산호도(珊瑚島)는 구경도 못 하는
그곳은 남십자성(南十字星)이 비춰 주도 않았다

꽃기는 마음 지친 몸이길래
그리운 지평선(地平線)을 한숨에 기오르면
시궁치는 열대 식물(熱帶植物)처럼 발목을 오여 찼다

새벽 밀물에 밀려온 거미이나
다 삭아빠진 소라 껍질에 나는 붙어 왔다
머- 항구(港口)의 노정(路程)에 흘러간 생활(生活)을 들여다보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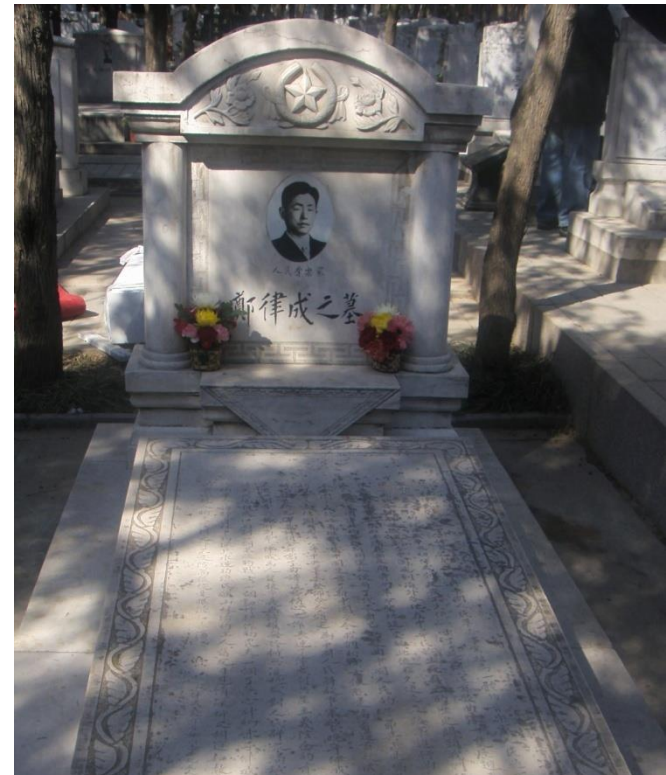
- <자오선>(1937. 12) 발표

2012/01/07





▲ 2012년 1월 15일 KBS 1TV '13억 대륙을 흔들다, 음악가 정율성' ©KBS



鄭律成同志一九一四年陰曆七月七日出生於朝鮮全羅南道光州的一個革命家庭。少年時期即參加反日愛國獨立運動。一九三三年來到中國，先後在南京、上海一帶從事抗日救亡活動。一九三七年十月赴延安。一九三九年一月參加中國共產黨。他將自己的一生獻給了中國人民的革命和建設事業，是一位忠誠的國際主義戰士。一九七六年十二月七日逝世於北京，終年六十二歲。

一九九七年四月一日敬立



북경 팔보산 혁명 공묘 내 정율선 선생 묘

무한, 중경, 계림에서의 활동들

- 남경대학살 이후 일본의 내륙 침략으로 이화림 여사는 조선민족혁명당원들과 함께 1938년 중경으로 옮겨 활동
- 1938년 10월 10일 무한에서 조선의용대 창립
- 1939년에는 계림으로 가 조선의용대 여자복무단 부대장으로 활동
- 이후 무한을 거쳐 1941년 화북 태항산(太行山)지구 팔로군 항일근거지로 이동해 항일활동 전개



조선의용대 창설 (1938년 10월 10일 우한)

조선민족전선 이사, 조선민족혁명당 총서기 김원봉이 장개석과 협상해 창립.

중국공산당의 지원뿐만 아니라 당시 국민정부군사위원회 정치부 부부장 주은래와 정치부 제3청청장 곽말약이 적극 지원





조선의용군 이동 경로

1941.7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로 개편
1942.5 반소탕전
" 7 조선의용군
화북지대로 개편

1944.9 옌안으로 이동

1945.8.15 해방 이후
만주·한국 이동

중국

한국

베이징

스좌장

1941.12 스좌장 전투

옌안

타이항산

1941.3 조선의용대 집결
타이항산으로 이동

뤄양

1940.11 항일 복상 결정

라오허커우

1938.10 조선의용대 창설

우한





1938년 중경(重慶)시기의
이화림 여사



1939년 광서(廣西) 계림(桂林) 조선의용
대 활동 당시의 이화림 여사(가운데)



계림시기의 여성의용대원



1939년 계림(桂林) 조선의용대 창립1주년 기념사진

태항산지구, 연안에서의 활동들

- 1941년 중국 화북 태항산 항일근거지 도착
- 1942년 3월 화북조선인민간부훈련반 입학
졸업 후 조선혁명청년학교(교장 무정) 지원
- 1943년 봄부터 조선의용군 병원에서 근무
- 1944년 연안으로 들어가 화북조선독립동맹 주석
김두봉 휘하에서 활동
- 1945년 1월 무정의 권유로 연안 중국의과대학 입학
- 1945년 연안에서 해방 맞음. 졸업 후 연변의학원에 배치됨

도올이 본 독립운동사 7부 십자령에 뿌린 의혈(義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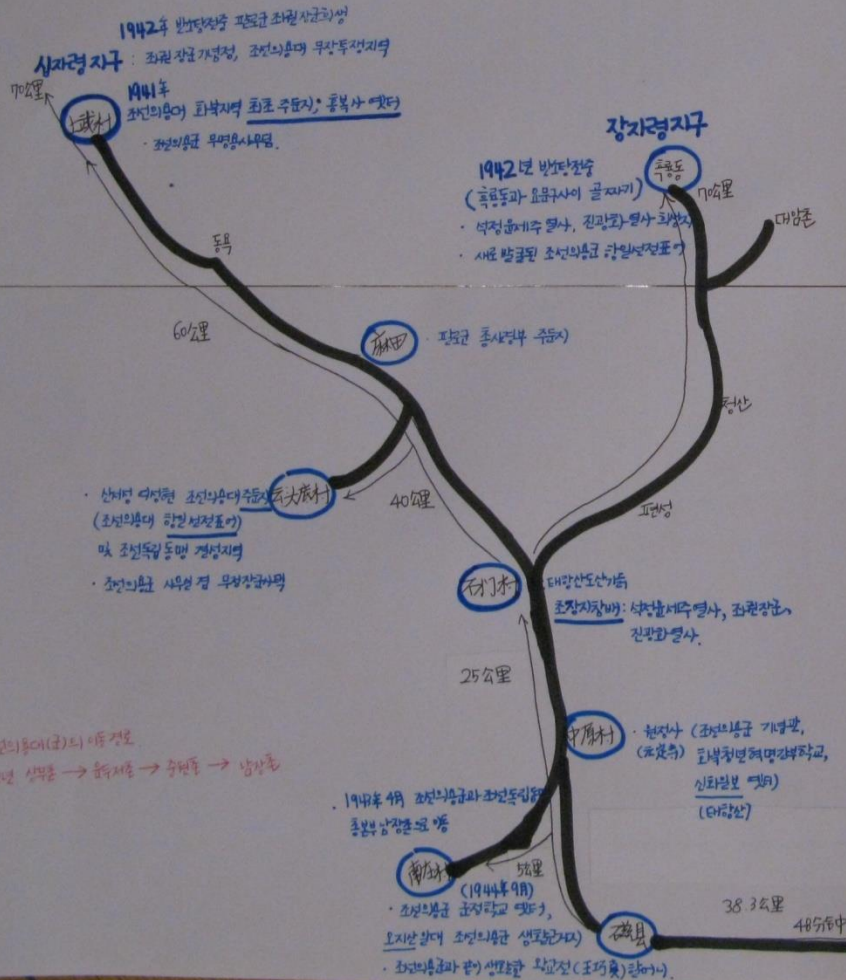
-독립을 향한 고귀한 희생 조선의용대



<십자령에 뿌린 의혈> 시청(약 15분)

중국 화북지역 항일유적지 탐방지도

북경 298.0公里 石家荘火車站



중국 화북지역 항일유적지 탐방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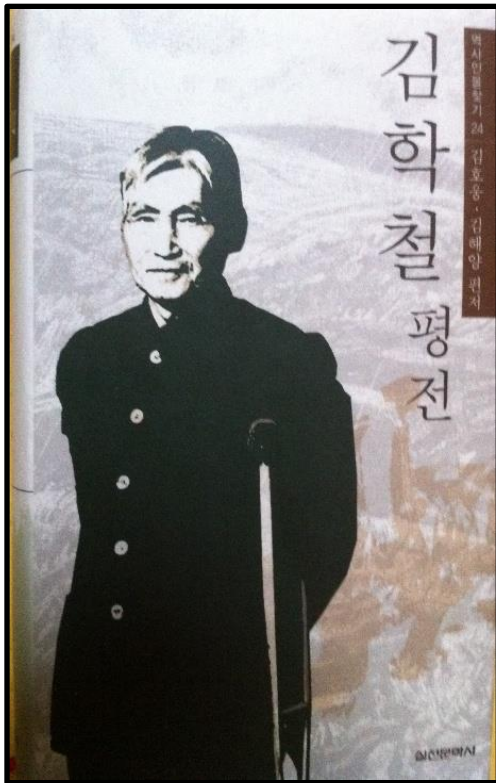
조선의용군 최초 주둔지인 상무촌의 옛 홍복사 사찰터.
이곳에서 조선의용군 2명이 일본군에 의해 피격되는 장
면을 직접 목격했다는 할아버지와 함께



상무촌 마을 뒤를 병풍처럼 웅장한 바위산. 이 산의 중턱에는 조선의용군 무명용사 무덤이 있다. 마을사람들은 매해 한식(청명) 때 이곳을 찾아 제사를 지낸다고 한다. 참 고마우신 분들이시다.



1941년 12월 12일에 발생한 호가장(胡家庄) 전투지 . 조선의용대 20여명과 일본군 300여 명이 전투를 벌려 조선의용대 4명이 희생되고 수 명이 부상을 입음.



**김학철 [金學鐵, 1916~2001.9.25] , 함남 원산
본명 홍성걸, 조선의용대 마지막 분대장
척각(隻脚)의 투사**

일제 강점기에는 항일 독립운동가로
광복 후에는 소설가로 활동한 중국 연변의 조선족 작가.
1950년 중국으로 망명 후 작품 창작에 전념 중 필화사
건에 연루됨.
가장 오래 살아남은 조선의용대 분대장이었으며 주요
작품으로 《격정시대》 등이 있음.

“편안하게 살려거든 불의에 외면을 하라!
그러나 사람답게 살려거든 그에 도전을 하라!”
- 김학철 선생의 유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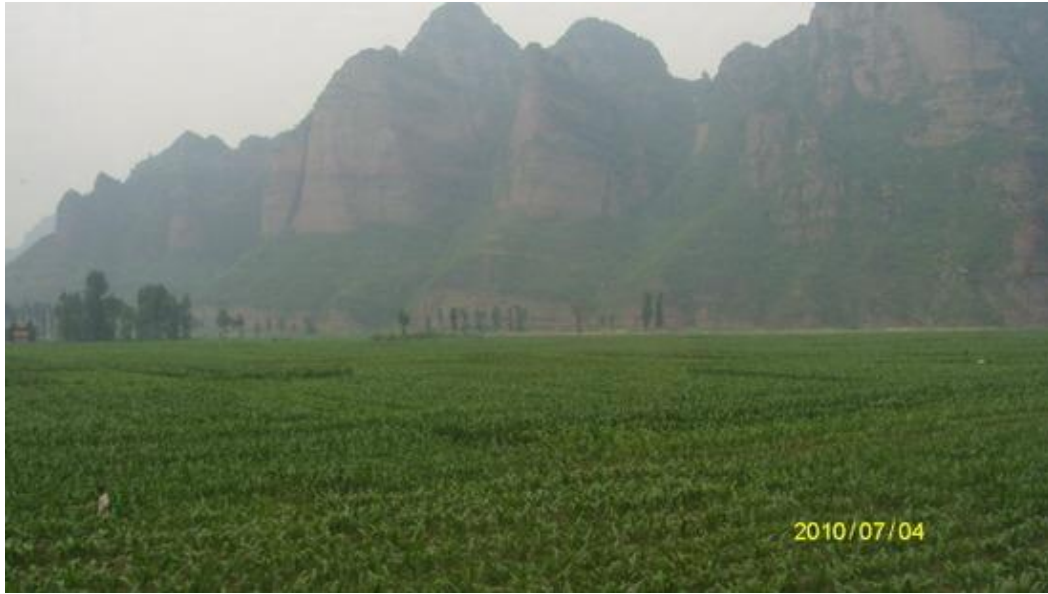


호가장 전투에서 희생된 4분의 의용대원 묘지(黃北 坪村):
박철동(30세), 손일봉(29세), 이정순(왕현순, 24세), 최철호(한청도, 26세)



전국농민회총연맹충남도
연맹 회원들과 함께 참배
<2016년 7월 13일>





마전 팔로군 총사령부 앞 풍경. 예전에는 麻를 많이 심어 마전이었던 것 같다. 지금은 옥수수가 빼곡히 심겨져 있다. 그 앞에는 병풍처럼 바위가 둘러싸여져 있다.

마전 팔로군 총사령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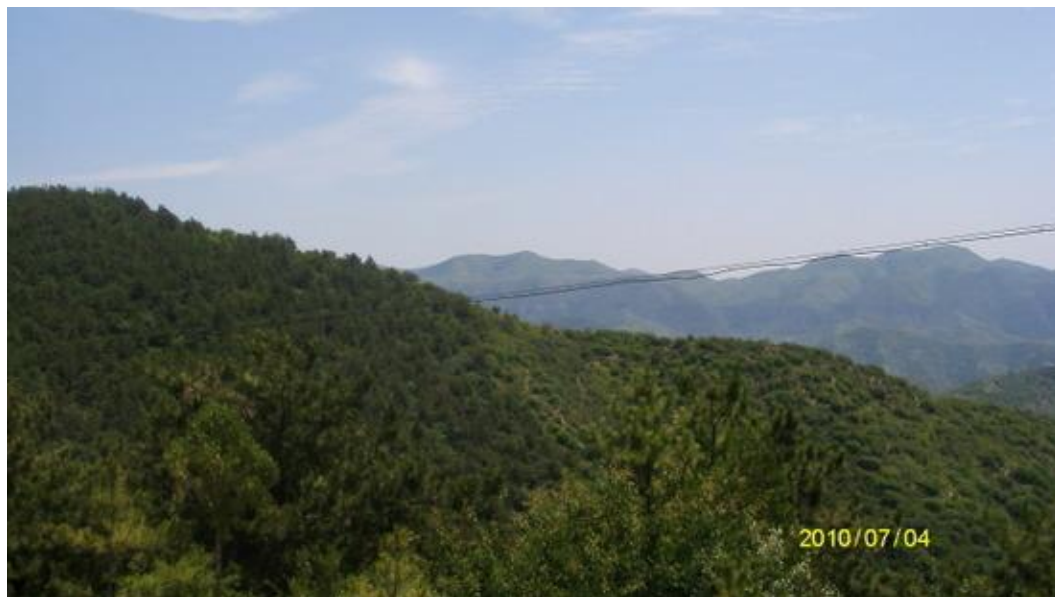


십자령 정상과 좌권 장군

윤세주 열사, 진광화 열사는 일제에 의해 십자령에서 희생됨(아래)



십자령에서 희생된
팔로군 부참모장 좌
권(左權)장군



2010/07/04



▲ 팔로군과 연합해 일제의 소탕작전에 맞서 싸우다
장렬히 전사한 조선의용군
석정 윤세주 열사(우), 진광화 열사의 묘지(좌)
(이후 1950년 10월 허베이성 한단시 혁명열사릉으로 이장함)



石正 尹世冑 烈士

석정 윤세주 열사 | 1901-1942

原名尹世冑，又名尹小龙、石鼎。韩国庆尚南道密阳人，1901年6月24日生。1919年朝鲜3.1独立运动后，在中国吉林组织“义烈团”，因策划刺杀朝鲜总督而被捕入狱7年。出狱后流亡中国。1935年参与组建朝鲜民族革命党，任中央委员、中央执行委员等职，被称为“朝鲜民族革命党之灵魂”。是朝鲜义勇军建军的核心成员。1942年5月28日，在反扫荡作战中牺牲于河北省涉县庄子岭。时年42岁。1982年被授予大韩民国建国功劳勋章、独立章。

경상남도 밀양사람으로 1901년 6월 24일에 태어났다. 1919년 3·1 독립운동 후, 중국 길림에서 의열단을 조직했으나 조선총독부 폭파를 계획한 혐의로 체포되어 7년 동안 옥고를 치렀으며 출옥 후 중국으로 망명했다.

1935년 민족혁명당을 조직하고 중앙위원, 중앙집행위원등의 직책을 맡아 “조선민족혁명당의 영혼(중심)”이라고 불리며, 조선의용대의 핵심 인물이 되었다. 1942년 5월 28일 태항산 반소탕 작전중, 하배이성 십현 강자령에서 42세로 순국하였다. 1982년 대한민국 건국훈장 독립장이 추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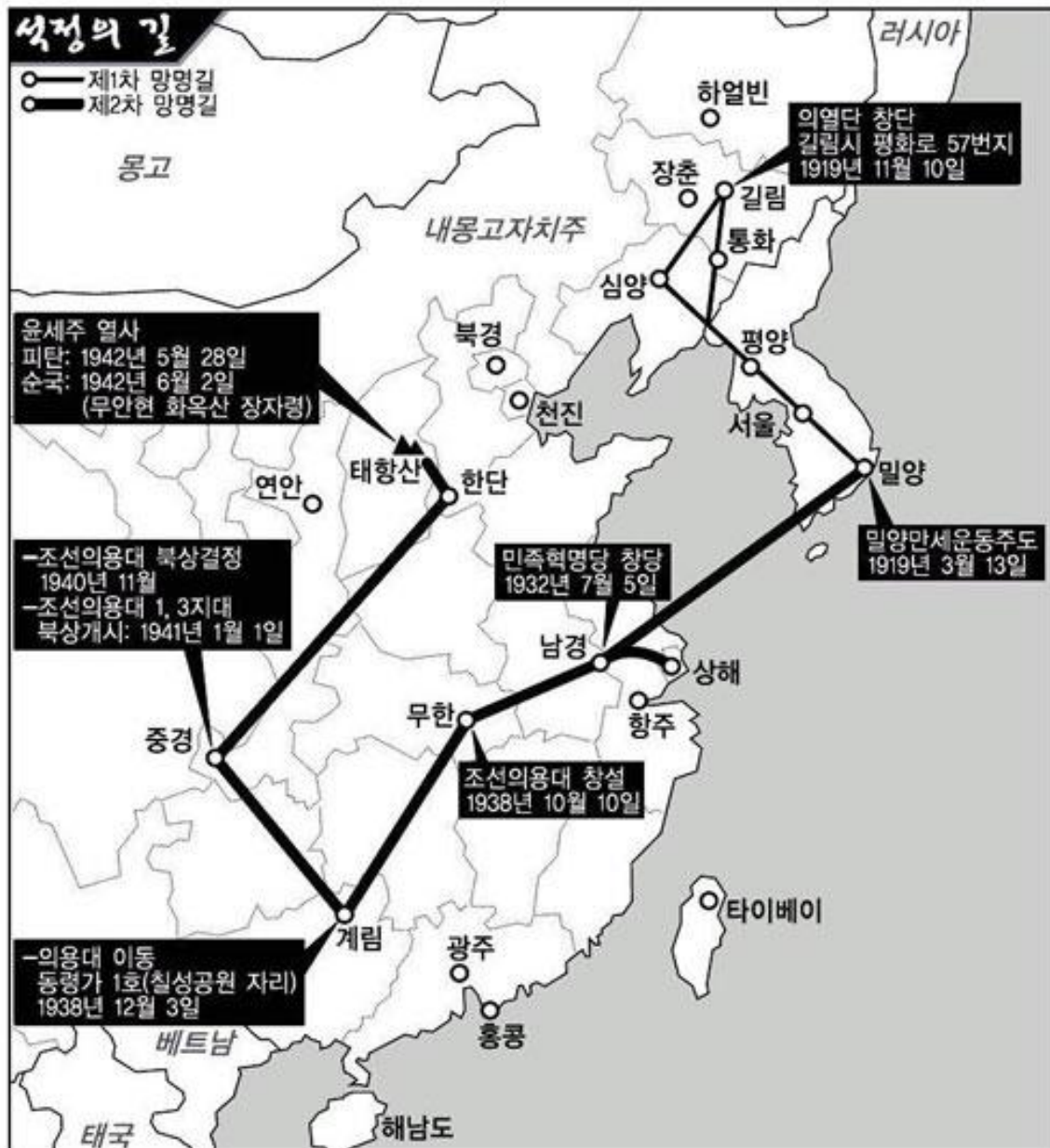


陈光华 烈士

진광화 열사 | 1911-1942

朝鲜平安南道大同郡人，原名金昌华，1911年生。1931年流亡中国，1936年加入中国共产党，1937年毕业于广州中山大学教育系。1938年抵达太行山抗日根据地，任中共晋冀鲁豫党校副校长、华北朝鲜青年联合会晋冀鲁豫支会会长、朝鲜义勇军华北支队指导员。1942年5月28日，在太行山反扫荡作战中牺牲，时年31岁。1993年被授予大韩民国建国功劳勋章、爱国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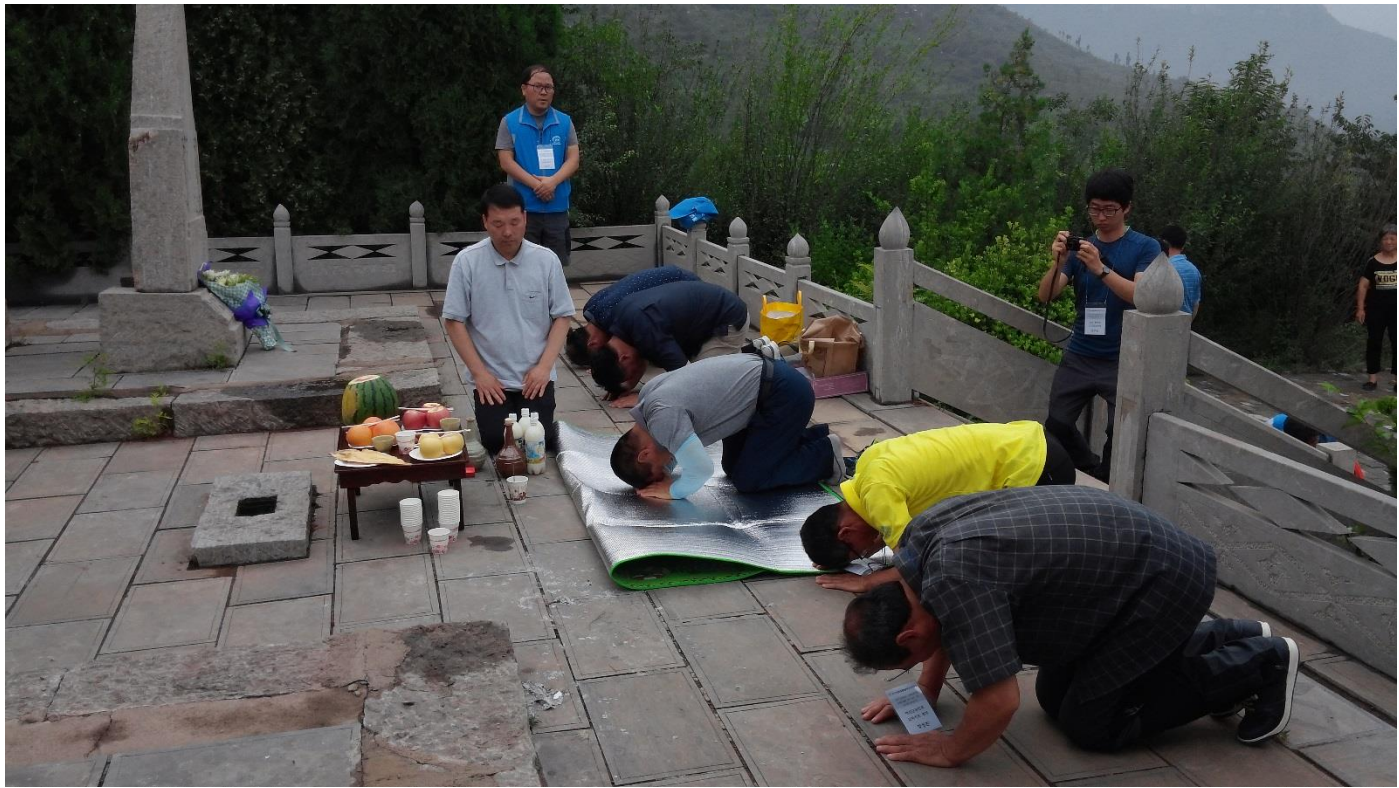
평안남도 대동군 출신으로 1911년에 태어났다. 1931년 중국으로 망명하여 1936년 중국공산당에 입당했다. 1937년 중산대학을 졸업한 후 1938년 태항산 항일근거지로 들어와 중공 진기로에 당교 부교장, 화북조선청년연합회 회장, 조선의용군 화북지대 지도원으로 활동하였다. 1942년 5월 28일 태항산 반소탕 작전중 31세로 순국하였다. 1993년 대한민국 건국훈장 애국장이 추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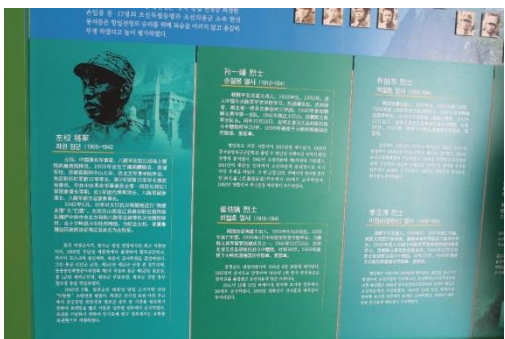
석정 윤세주 열사의
항일투쟁의 길
(자료: 경남도민일보)



석정 윤세주 열사, 진광화 열사
그리고 이역만리 중국에서 산화한 수많은 무명 열사들께 참배를 올렸다.



조선의용군열사기념관





1942년, 타이항산 팔로군 항일근거지에서 반소탕전투 중 부상을 입은 대원을 응급처치해 주고 있는 이화림 여사



중원촌(中原村), 1942년 화북조선청년연합회는 화북조선독립동맹(김두봉)으로 이름을 바꾸고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를 조선의용군 화북지대로 개칭한 곳. 마을 아이들이 태권도를 단련하고 있다.



朝鮮義勇軍總部 朝鮮革命軍政學校旧址

1943年4月，朝鮮義勇軍、朝鮮獨立同盟進駐涉縣南莊村。1944年9月朝鮮革命軍政學校在南莊村成立，《中國人民解放軍軍歌》曲作者，生于韓國光州的著名作曲家鄭律成任教育長。1945年8月日本投降，朝鮮義勇軍離開南莊村。兩年間為朝鮮抗日獨立運動培養出黨政軍骨幹300餘人。

조선의용군 총본부, 조선혁명군정학교 옛터

조선의용군과 조선독립동맹 총본부와 1943년 4월에 선향 남장촌(涉縣南莊村)으로 이전해 주둔하면서 1944년 9월에 이곳에서 조선혁명군정학교를 설립하게 되었다. 교장으로 한국 광주에서 태어났고 <중국인민해방군군가>를 작곡한 유명한 음악가 정율성(鄭律成)을 임명하였다. 1945년 8월에 일본군이 투항하고 조선의용군이 이 남장촌을 떠나기 전까지 약 2년 사이에 300여명의 조선항일독립운동의 핵심인물들을 양성했다.

남장촌 조선의용군총부와 조선
혁명군정학교 안내표지
1944년 9월에 설립된 이곳은
항일무장투쟁을 위한 조선의용
군 약 300명을 교육했던 곳



조선혁명군정학교에 대해
설명하시는 한단시 역사문
화연구소 상영생 선생님(우)





섭현 남장촌 오지산
자락의 조선의용군
생활기지 앞에서.

조선의용대 오빠들의 모습을
또렷이 기억하고 계시는 정교
전 할머니와 함께.



미나리, 미나리, 돌미나리
타이항산골짜기의 돌미나리
한두 뿌리만 캐어도
광주리에 가득차누나.
에해요, 에해요, 에-해요,
우리의 근거지, 너무도 사랑스러워,
우리의 타이항산 너무도 아름다워.

조선의용군이 농사를 지었던 남장촌 오지산(五指山) 자락





무정 장군과 조선의용군이
마지막으로 거처했던 雲頭底
村의 건물과 당산나무.
이 나무는 우리 조선의 의용
군들을 기억하고 있겠지...

조선의용군은 퇴각하면서 마
을 입구 문루에 일본군내 조
선인을 향해 "**왜놈의 上官놈
을 싸 죽이고 총을 메고 조선
의용군을 찾아오시오**"라고 쓴
선전문구가 아직도 선명하게
남아있다.





**석정 윤세주, 진광화 열사님께 묵념과 헌화
(한단시 진기로예 열사능원)**



**이육사 의사(1904.4.4-1944.1.16) 순국 장소
(베이징 소재, 구 일본군 헌병사령부 구치소)**

해방이후의 활동들

-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중국인민해방군의 지시로 이화림 여사는 조선인민군 제6군단 위생소 소장으로 복무
- 하지만 의료복무 중 미군의 폭격에 부상을 입어 요녕성 심양으로 복귀한 이후 다시는 조국으로 못 돌아감.
- 이후 중국에 남아 심양의사학교 부교장, 중공고급당교 수학, 중국 교통부 위생기술과 간부, 연변조선족자치주 위생국 부국장과 주의 당대표 역임
- 문화대혁명 때 반혁명분자로 몰려 근 10년의 고초를 겪음. 그로 인해 건강이 나빠져 복권 이후 대련으로 옮겨 요양
- 대련에서 우리 민족을 위해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다가 1999년 2월 10일 향년 95세로 머나먼 항일투쟁의 길을 마감



1950년 한국전쟁 당시의 이화림 여사. 그녀는 당시 조선인민군 제6군단 전선(前線) 위생소 소장 역임



1955년 9월에서 1956년 7월, 중공고급당교에서 공부한 이화림 여사(가운데)



1962년 리췌(李貞) 장군(앞줄 왼쪽에서 네 번째)의 연변시찰 당시 동지들과의 기념촬영 모습. 이화림 여사(앞줄 오른쪽에서 두 번째)는 당시 연변조선족자치주 위생국 부국장 재직



1964년 7월 13일, 캉커칭(康克清) 동지(가운데)의 연변시찰 당시 동지들과의 기념촬영 모습. 이화림 동지(오른쪽에서 두 번째)는 당시 연변조선족자치주 위생국 국장을 맡고 있었음.



1983년, 이화림 여사가 다롄(大連)의 노년협회에서 활동할 당시 강연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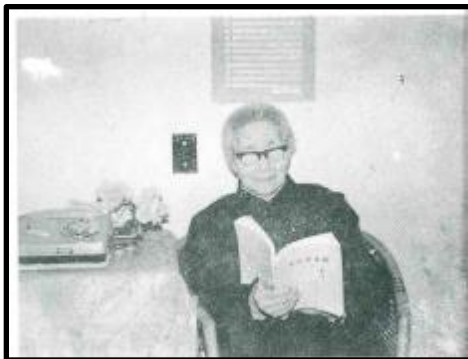
1986년 5월 6일, 이화림 여사는 중국작가협회 연변분회 아동동문학상기금회에 1만2천 위안 기탁 사진은 제2회 화림신인문학상 수여식에 참가한 이화림 여사가 아동작품 작가에서 상을 수여



1987년, 이화림 여사는 기후가 좋고 풍경이 빼어난 다렌의 바이원산장(白雲山莊)공원 부근에서의 기념사진



1994년 1월 6일, 다렌시 당정지도자와 사회 각 계인사들이 이화림 여사의 생신을 축하함



1993년 7월 1일, 근 90세의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독서하는 이화림 여사

“나의 마음은 희망으로 충만해 있다.
나는 우리들의 국가가 번영하길 희망한다.
나는 머지 않는 날에 조선이 평화적으로 통일
되길 희망한다.

나는 미래가 찬란하길 희망한다.
나는 미래가 더욱 아름답길 희망한다.”

-<이화림 회고록>의 마지막 글 중에서



출처: 구글지도



충남도에 제안합니다.



1. 항일 역사교류 추진: 남북학생공동 역사탐방



2. 여성독립운동을 매개로 한 기념 활동 전개



유관순 열사기념 공원(위) 기념관(아래)



출처: (사)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

3. 이념을 초월한 독립운동의 역사 기념



밀양 의열기념관 개관
(2018.3.7. 연합뉴스)



출처: 위키백과

.....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